

사회

비리·불신... 흔들리는 ‘법조三輪’

검찰, 법원, 변호사 등 이른바 ‘법조 삼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현직 검사의 뇌물수수·성범죄에 이어 검찰 핵심간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불의가 잇따르고 국민 법 감정에 벗어난 재판진행과 판결, 변호사와 의뢰인의 마찰 등으로 신뢰를 최우선시해야 할 법조계의 권위가 손상되고 있다.

법원-“국민 법 감정 벗어났다” 항의 검찰-뇌물·성범죄, 중수부장 감찰도 변호사-의뢰인과 마찰 심화 흥기피습

28일 광주지검과 인화학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대책위 측은 검찰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 검찰이 신청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이는 최근 유례가 없던 일로, 광주고법에는 검찰이 기피신청을 해를 경우 재판부 변경 등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 역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실무수습 검사 5명의 성범죄 파문으로 조직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더욱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서 ‘꼬리 자르기’ 대처에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성범죄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용인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기에는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28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특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에게 문자로 언론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한 의혹으

로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또다시 검찰의 위신이 떨어질 상황이다.

포화상태에 있는 변호사들도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의뢰인들과의 마찰이 노골화되면서 변호사를 상대로 한 1인 시위가 잇따르고 광주에서는 의뢰인의 흥기 피습사건까지 발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법조계에 서 벗어지고 있는 물의로 법의 권위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식으로 번져나갈까 봐 걱정스럽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각 분야에서 현실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인화학교 성폭력 재판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 변경 등을 주장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책위 측은 이 같은 반발은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에서 증거로 인정한 사실들을 재검토하면서 장애인 피해자와 목격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이 같은 대책위의 입장은 피해자 측 변호사와 검찰에게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달 6일 공판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기피신청 여부는 그 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1심과 2심의 현격한 판결 차, 성범죄에 대한 잇따른 집행유예에 판결 등으로 혼란을 치른 법원이 이번에는 편파적인 재판 진행

도가니 가해자 강간죄? 강간치상죄?

항소심 정쟁... 공소시효 달라져 처벌 불가 논란

1심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인화학교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대해 인화학교 대책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광주고법과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창환)는 강간치상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가 이에 불복, 항소하면서 지난날 11일부터 3차

회의 공판이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 2005년 4월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A(당시 18세)씨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B(당시 17세)씨를 깨진 음료수 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2004년에 성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며 범죄발생시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피해자의 상해 역시 폭행이 아닌 자해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판을 진행했다.

따라서 목격자와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여기에 검찰에 범행 발생시점 등을 감안한 공소장 변경도 고려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번 인화학교 대책위는 피해자의 정신연령이 10대 초반에 불과하고 현재 임신한 상태이며, 목격자 역시 사건 후유증 등으로 최근까지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쓰고 불면증과 공포감을 갖고 있어 법정 증언이 불가능하

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문제삼는 배경이 무엇이나 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004년 강간 혐의만 인정된 경우 공소시효 7년이 만료돼 김씨를 단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강간치상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범죄 발생시점이 2004년이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만큼 가해자도 충분히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도록 증거를 다시보고 실제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해자나 목격자를 최대한 배려해 증언을 들겠다”고 여러차례 설명했는데도 대책위가 재판부를 불신하고 있어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6명에 새 생명 나누고 떠난 친사

뇌사 40대 女 장기 기증

불의의 사고를 당해 숨진 40대 여성이 장기를 기증하고 떠나 새로운 생명을 살렸다. 28일 광주서부경찰과 조선대 병원에 따르면 뇌사관정을 받은 A(여·42)씨가 지난 28일 심장, 간, 신장, 각막 등을 기증해 6명에게 이식됐다.

A(여·42)씨는 지난 22일 밤 10시16분에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건물 계단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곧장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지

난 25일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병원은 A씨에게 뇌사관정을 내렸다. A씨를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던 딸은 믿기지 않았지만 이내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병원과 상의해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병원 측은 지난 28일 오전 9시께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씨의 호흡기를 떼었다. 경찰 관계자는 “감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입은 유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한전 몰래공사’ 본격 수사

나주경찰, 주거침입 파악

나주경찰이 ‘한국전력의 몰래공사’ 〈본보 26일자 6면 보도〉와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8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1시에 고압선로 공사에 반대하며 소송중이던 다시먼 김장병(50)씨 집에 몰래 들어가 공사를 한 사건과 관련 최근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쳤으며, 이 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한전 관계자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한전 관계자 등이 현장에

있었다는 김씨의 주장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시공사의 불법 주거침입 목인 이유와 공사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주 내 한전과 시공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후 주거침입죄가 확인되면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과 시공사 S업체는 ‘154KV 나주-평동간 고압선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21일 새벽 12시58분부터 2시20분까지 김장병씨의 집에 무단침입해 예비공사를 한 바 있다.

/나주=송영철기자 ycsom@kwangju.co.kr

찜질방 절도 20대 영장

광주북부경찰은 28일 찜질방에서 손님들의 금품과 차량을 훔친 송모(21)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7월 17일 새벽 5시에 광주시 북구 삼각동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최모(59)씨의 옷장 열쇠를 훔친 뒤, 옷장에서 발견한 차량 열쇠로 최씨의 렉스턴 차량을 훔치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또 다른 절도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학폭 미기재’ 경기·전북 교육감 등 26명 고발

교육과학기술투자 확대정책

교육과학기술투자 확대정책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은 경기·전북 교육감과 전·현직 교장 등 26명을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올해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요청한 교과부 공문을 학교에 전하지 않거나 법령 및 훈령과 다른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전달한 김삼근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 20곳

(전북 12곳·경기 8곳)의 전·현직 교장 2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기교육청 대변인은 교과부 감사단의 감사 활동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9월 경기, 전북, 강원 교육청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에 관한 특검감사를 벌여 경기·전북 교육감과 학교장을 고발키로 하고 교장과 교육청 간부 등 8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정기모집에서도 학교폭력 기재방지를 어기는 고교가 나오면 관할 교육청 감사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2012타경 12595	2	나주시 노안면 도산리 652 542㎡ [현:전]	답	9,214,000 9,214,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2타경 14089	1	영광군 낙월면 각리리 산80-1 44585㎡ 동소 산80 44585㎡	임야	26,751,000 26,751,000	일괄매각
2012타경 16764	1	회춘군 돌복면 유현리 726 605㎡ [현:목전]	전	2,420,000 2,42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동소 산318 4463㎡	임야	2,454,650 2,454,650	
2012타경 18449	3	동소 779 608㎡	전	2,296,000 1,043,400	농지취득자격증명
	4	동소 800 222㎡ [현:목전]	전	1,043,400 1,043,400	
2012타경 18821	1	담양군 용면 통천리 산96 10909㎡	임야	9,818,100 9,818,100	
	2	동소 1006-1 378㎡ [매각외주택등소재하고 있음며법정지상권설립여지]	대	45,360,000 45,360,000	
2012타경 19077	1	담양군 용면 용지리 445 2264㎡	전	28,300,000 28,3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동소 산116 13686㎡	임야	23,266,200 23,266,200	
2012타경 19626	1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2487-3 9891.3㎡	답	186,653,600 186,653,6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2464-8 7511.4㎡	답	82,625,400 82,625,4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2타경 19763	1	영광군 묘량면 월말리 433 233㎡	답	1,933,900 1,933,9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동소 508-3 1104㎡	답	7,065,600 7,065,6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2타경 21681	3	동소 520-2 1252㎡	답	9,139,600 9,139,600	농지취득자격증명
	4	동소 467-2 196㎡	답	23,029,200 23,029,2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22691	1	영광군 묘량면 월말리 산227 12196㎡	임야	9,758,400 9,758,400	
2012타경 10506	1	나주시 중앙동 8 672㎡ [물건번호1: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는1회만허용] 동소 8 1호 321㎡ 부속건물 화장실 9.36㎡	대 일용토소 매장	398,315,040 398,315,040	일괄매각, 매각제외제외건물소재, 각공유자택전선지분3분의2전부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아파트]					
2012타경 18692	1	광주광역시 서구 용암순환로112, 306동 401호 [용암동, 용암3차대주파크빌] 84.8150㎡	아파트	190,000,000 190,000,000	
2012타경 18821	3	광주광역시 남구 지석동 443 한일베라채어파트 110동 2층 202호 84.783㎡	아파트	165,000,000 165,000,000	
2012타경 21438	1	광주광역시 남구 병림동 556-1 208동 6층 702호 84.96㎡	아파트	130,000,000 130,000,000	
2012타경 21957	1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 1041번길 15, 108동 18층 1801호 59.99㎡	아파트	100,000,000 100,000,000	신용동, 용두주공 아파트
2012타경 22325	1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603, 101동 11층 1101호 50.22㎡	아파트	72,000,000 72,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2타경 14485	1	장성군 장성읍 원천리 410 397㎡ 동소 410 83.68㎡ 제시외 창고 78.7㎡	대 주택	66,424,800 66,424,8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수목포함매각
2012타경 17712	1	광주광역시 서구 능동동 657-23 299.7㎡ 동소 657-23 1층 151.94㎡ [6가구] 2층 151.94㎡ [6가구] 3층 139.87㎡ [5가구] 제시외 다용도실 12.4㎡	대 다가구	441,431,500 441,431,5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2타경 21544	1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164-31 47.49㎡ 제시외 창고 1.4㎡ 동소 164-31 89㎡	주택 대	54,882,300 54,882,3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2타경 22066	1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282-29 161㎡ 동소 282-29 1층 91.14㎡ 2층 69.39㎡ 부속 건물 변소 1.2㎡ 제시외 다용도실 29㎡	대 단독주택	127,167,830 127,167,83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2타경 22578	1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201 154㎡ 동소 201 1층 156.09㎡ 2층 98.67㎡ [현할 140.68㎡] 지하실 25.74㎡ [현할정도및주택] 제시외 다용도실 8.72㎡	대 주택	188,776,300 188,776,3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건물이 서동201및서동288
[대지/임야/전답]					
2012타경 37834	1	나주시 다도면 관촌리 84-1 1061㎡ [현제답] [현토사용중]	대	16,976,000 16,976,000	매각제외대상인비
2012타경 10506	2	나주시 중앙동 8-2 1162㎡ [공유자택전선지분3분의2전부] [매각외건대이외3층소재]	대	557,784,000 557,784,0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만허용
2012타경 12595	1	나주시 노안면 도산리 517-6 1907㎡ [분묘수기소재]	임야	18,307,200 18,307,200	분묘기전선설립여지있음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용민